

특급 위기관리... 거침없이 6승



류현진, 피츠버그전 6이닝 2실점
부상회복후 3연승...ML 통산 20승
7일 콜로라도 원정경기서 7승 도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원소 투수 류현진(27)이 어깨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3경기 연속 승리이자 시즌 6승째를 거뒀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후 40경기 만에 개인 통산 20승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10안타를 내렸지만 사구 하나 없이 탈삼진 4개를 곁들여 2실점으로 막았다.

올 시즌 등판 경기에서 최다 피안타(중전 9피안타)를 기록했지만 집중타를 허용하지 않고 2경기 연속 무사구 경기를 하면서 실점을 줄였다.

게다가 4번 타자 헨리 라미레스가 연타석 홈런을 포함해 4타수 4안타 5타점을 올리는 등 타선이 모처럼 폭발하면서 류현진은 여유있게 마운드를 지켰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12-2로 크게 앞선 7회초 수비 때 제이미 라이트와 교체됐다. 다저스는 14안타를 몰아치고 올 시즌 팀 최다 득점(중전 9득점) 경기를 펼치며 결국 12-2로 승리해 최근 3연패 사슬을 끊었다.

이로써 올 시즌 10번째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왼 어깨 부상을 털고 마운드에 복귀한 이후 3연승이자 시즌 6승(2패)째를 챙겼다. 이로써 데뷔 첫해인 지난해 30경기에서 14승 8패를 기록한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통산 40경기 만에 20승을 올렸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10에서 3.09로 조금 낮아졌다.

류현진은 이날 109개의 공을 던졌다. 이 중 스트라이크는 73개였다. 최고 구속은 시속 94마일(시속 151km)이 찍혔다.

현재의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류현진의 다음 등판 경기는 닷새를 쉬고 나서인 오는 7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경기에서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KIA 발목 잡는 '부실 마운드'



5월 팀타율 0.306, 출루율 0.367로 상위권
투수 평균자책점 6.18...선발·불펜 '총체적 난국'
이기던 경기 번번이 역전패...5월 10승 14패

'투저타고'에 발목 잡힌 5월이었다. 지난 31일 NC와의 경기가 7-8 역전패로 끝나면서 KIA의 5월 전적은 10승14패로 끝났다. 마지막 날 역전패, KIA의 지난 5월 문제점이 집약된 패배였다.

5월 타선의 성적만 보면 '천하무적'이다. KIA의 한달 팀타율은 0.306. 31개의 홈런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타율이 0.483. 출루율도 4월 0.337에서 0.367로 경총 뛰어올랐다. 24경기에 홈에 들어온 주자는 151명으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6.3점에 이른다.

5월 성적만으로는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타격이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6점 이내로 마운드를 지킨다면 승리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실제 성적은 10승14패로 4경기에서 적자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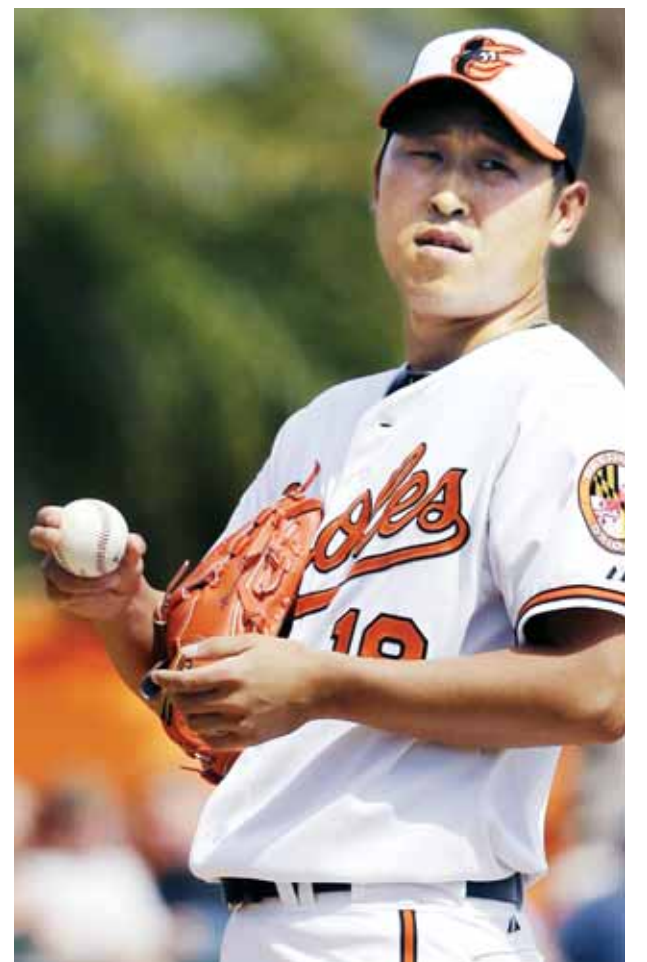
24경기에서 KIA 투수들은 6.1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26개의 홈런을 얻어맞는 등 161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임시 5선발 체제 속 '극과 극'의 피칭을 한 선발진과 24경기에서 단 4개의 홈런만을 기록한 불펜진의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그러나 선발이 분투를 한 날 겨우 승리를 가져오는 패턴. 5월

10승 중 3승은 에이스 양현종이 책임졌다. 5월 한달 양현종은 5경기에 나와 35이닝을 책임지면서 3승1패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2.57, 볼넷은 11개로 묶고 탈삼진은 41개를 뺐아냈다. 송은범·김진우·임준선·홍튼은 각각 1승을 챙기는데 그쳤다.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실책들도 여전했다. 5월 KIA가 기록한 실점 161점 중 자책점은 149점. 실책으로 주지 않아도 될 12점을 더 준 셈이다.

투·타의 불균형 속, 부상도 5월의 화두였다. 김선빈이 부상의 시작과 끝이었다. 지난달 1일 햄스트링 부상으로 엔트리가 말소됐던 김선빈은 복귀 4일 만인 지난 31일 다시 햄스트링 파열로 재활군이 됐다. 김민우(좌측 햄스트링), 임준혁(좌측 햄스트링), 김주찬(손가락 열상), 송은범(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등의 이름이 5월 부상일지를 채웠다.

지긋지긋한 부상 속 허약한 마운드에 힘 빠진 타선, 실점 뒤 득점 다시 득점의 패턴이 계속되면서 KIA의 5월은 추격만 하다가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빅리그 진출 '청신호'

윤석민, 트리플 A 7이닝 1실점 '2승'

윤석민(볼티모어)이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빅리그행에 청신호를 켰다. 미국프로야구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의 윤석민이 1일 포터 레드삭스(보스턴 레드삭스 산하)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5피안타(1홈런) 1실점의 호투로 2승을 챙겼다. 팀은 3-1 이겼다.

두 경기 연속 7이닝을 소화한 윤석민은 91개의 공 중 66개를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넣은 공격적인 피칭으로 5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사사구는 기록하지 않은 깔끔한 피칭이었다.

4-5회를 제외하고 매 이닝 선두타자가 나갔지만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실점을 막았다. 평균자책점은 6.32로 5.67로 떨어졌다.

윤석민은 앞서 리하이밸리(필라델피아 산하)와의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으로 미국 진출 후 최다 이닝이자 첫 퀄리티 스타트를 끊은 뒤 두 경기 연속 호투를 이어가며 빅리그 진출 속도를 내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말·말·말

▲"나갈 사람 많이 있어요." 유격수 김선빈이 지난 31일 복귀 4일 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엔트리가 말소됐다. 2루수 안치홍도 주중 경기 도중 도루를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등 야수진에 크고 작은 부상이 쌓였다. 1일 다시 또 부상병이 생겼다는 주변 우려와 달리 선동열 감독은 "아픈 선수들은 있지만 나갈 사람 많이 있다"며 애써 여유를 보였다. "있는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괜찮다"는 설명이었다. 올 시즌 백업 선수들이 약진으로 야수진 부상 공백은 크지 않은 상태. 김선빈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민우가 부상에서 회복해 합류하는 등 야수진 운영은 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불펜 공백에 답을 찾지 못하면서 1일에도 KIA 불펜진은 모두 대기 상태로 그라운드를 응시했다.

김경문 "감독들 여름 보양식은 팀 승리"

▲"승리가 보양식이죠." 지난 주말 광주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면서 덕아웃의 선종기가 본격 가동해 들어갔다. 물을 찾는 선수들로 냉장도 앞도 문전성시. '이열치열' 러닝을 하며 더위를 이기는 선수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NC 김경문 감독은 외야를 뛰며 땀을 흘리는 선수들을 보고 "더울 때 러닝을 하면서 땀을 빼면 개운하다. 여름 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감독이 여름을 나는 방법은? 김 감독의 대답은 간단했다. "승리가 보양식이야."

▲"투수는 마운드에서 행복하죠." 베테랑 우완 최영필(40)이 KIA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필드를

를 밟았다. 지난 3월 신고 선수로 KIA와 인연을 맺었던 최영필은 정식 선수로 등록이 가능한 6월1일 바로 엔트리에 합류했다. 퓨처스리그에서 1군 합류를 준비했던 최영필은 20경기에서 2.37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7세이브 홀드를 기록했다. 최영필은 "부담만 좋은 것만이다. 새로운 팀에서 뛰게 됐지만 낯설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투수는 마운드에서 행복하다. 결과는 뒤에 나오게 된다. 경기에 나가면 어떤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승부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영필은 1997년 현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한화과 SK를 거쳐 선발과 불펜으로서 역할을 해온 18년차 베테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